

도박의존자의 생존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n the Survival Experiences of Gambling Dependents

김진숙*, 차명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 사회복지학과**

Jin-Sook Kim(kjs324@hanmail.net)*, Myeong-Hee Cha(yama5000@hotmail.co.kr)**

요약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도박이 개인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와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단도박과 도박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생애 과정 중에서 도박과 단 도박을 경험한 여성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도박과 단 도박의 요인기제는 무엇이며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이끈 역동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적 사례연구로 접근, 연구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맥락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매트릭스분석을 한 연구결과는 15개의 하위범주와 8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고 주제는 빈곤과 결핍의 삶 안에서 적응과 대처를 반복하는 생존전략이었다. 제언으로는 고통의 근원,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콘텐츠,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 콘텐츠, 심리적 스트레스와 결핍을 해소하는 상담프로그램 콘텐츠,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대처한 기술훈련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콘텐츠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 중심어 : | 도박 | 생존경험 | 기술적 사례연구 | 콘텐츠 개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about the meaning and factors of gambling in one's life. Thus, it is to develop contents that help gamblers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by broadening their understanding of gambling. To this end, data from women who had experienced gambling and also quit gambling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hat are the factors that deter gambling and gambling and what is the dynamics that lead to life? The research approach is a technical case study. The story and context of her life were in mind. The results of the matrix analysis were derived from 15 subcategories and 8 upper categories. The result was to adapt and cope within the mental and economic deficits and to survive survival.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content developmen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unseling contents that can heal their pain, stress, and heartache and to help one parent's family's economic survival. It also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capacity-enhancing contents such as technical training to cope with social structural changes is necessary.

■ keyword : | Gambling | Self-Survival | Descriptive Case Study | Contents Development |

*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17S1A5B805747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9년 02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3월 19일

수정일자 : 2019년 03월 13일

교신저자 : 차명희, e-mail : yama5000@hotmail.co.kr

I. 서론

도박은 4대 중독 가운데 하나로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놀이문화이지만 의존성이 심해 도박자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과 주변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1]. 2016년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도박 의존문제로 인한 폐해가 연간 7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음주나 흡연보다 몇 배나 더 큰 수치이다. 우리나라 도박인구는 220만 명[2]이며 사행산업규모는 2007년 약 14조 5천억 원에서 2016년 현재 21조 9천억 원을 넘는다[3]. 2007년 대비 무려 66%가 증가한 수치로 그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도박의 발생요인으로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이혼·실직·배우자 사망 등의 가족문제가 많으며 지금까지는 도박을 병적인 것으로 간주, 치료모델로 접근하였다[4].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뇌 화학물질(혹은 신경전달물질)이 관여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5]. 하지만 도박에 대한 인식은 점차 순화되어 가고 있다. 전에는 병리적 도박으로 취급하던 것을 DSM-IV에서 충동조절장애(APA, 1994)[6]로 약화하여 명명하고 있다. 도박은 단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 이론이나 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조근호(2011)[7]는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요인 등을 원인으로, 홍혜미, 김용근(2014)[8]은 도박하는 행위는 도박자와 그의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의 장시간에 걸쳐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로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맥락,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과 의미를 파악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또 하나의 흥미를 자극하는 연구는 피터 B 라베의 '마음의 개념' 연구로 그는 중독에 있어서 뇌와 마음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타인들과 공유하는 신념·가치·두려움 등과 같은 '서사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정신적인 삶[9]을 지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도박으로 빠지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도박 속에서 헤쳐 나오는 역동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에는 개인 도박자를 둘러싼 환경과 마음까지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의 달라드(J Dollard)와 밀러(N Miller) 역

시, 욕동(drives)은 인간행동의 중심이며 학습된 2차적인 욕동은 소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san, 2012;재인용)[10]. 즉, 도박하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2차적인 욕동의 근원을 사회적 맥락까지를 이해해야 실제 도박을 경험한 사람을 이해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해야말로 결국 도박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에 본 연구인 '도박의존자의 생존경험'이라는 사례를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마음과 사회 맥락적인 환경에서 이해할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도박의존 또는 단 도박 상태에서도 가족을 위해 자신의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한 여성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클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도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형태로 도전하고 적응하며 생존하며 단 도박으로 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도박이 개인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와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단 도박과 도박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도박과 단 도박에의 요인기제는 무엇이며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이끈 역동은 무엇인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도박

돈이나 가치가 있는 자신의 소유한 물건 등을 걸고 확실하지 않는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한국도박문제 관리 센터, 2016)를 도박이라고 정의하며 도박행위를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존이라고 말한다[6]. 도박의존은 개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뿐만 아니라 도박은 이제 사회문제로 확산되었다[11]. 4조원 대 불법도박 사이트 적발(2017. 8. 8, KBS)[12], 860억 도박 사이트 운영 (2017. 12. 3, YTN)[13]등의 보도는 도박이 점차 액수가 커지고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박은 어떠한 원인으로 의존에 이르게 되는가?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도박 의존을 병리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정신과적 질환

의 일종으로 보거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연구가 있다[7]. 또는 도파민 활성증가에 따른 비정상적인 욕구와 이를 조절하는 전두엽의 조절 기능저하에 따른 행동이며 인간의 충동성과 연관이 있는 세로토닌, 각성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노에피네프린의 활성의 증가로 보는 견해도 있다[14]. 또한, 의존의 원인을 유전으로 보는 연구에서는 부모가 도박 의존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에게도 도박 의존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약 3배 정도 높다고 한다[7]. 인간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는 환경적으로 접근성이 쉬울 때, 우울과 만성화된 내적 결핍상태에서 더 의존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고 보고한다[14]. 한편, 김충렬(2010)은 도박을 하는 의지적인 문제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하며 의존의 요인을 스트레스 감소와 결핍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 본능적 욕구와 쾌락, 존재가치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들고 있다. 특히, 이중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빈곤한 노인여성의 부에 대한 열망과 결핍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 욕구와 쾌락의 보상이 바로 도박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다[15].

2. 빈곤과 생존경험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으며 춘황(春荒)인 보릿고개개 태산보다 높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배를 곯았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과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졌다. 1960년 4.19 혁명으로 1961년에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그렇지만 하루 먹기 힘든 빈곤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빈한한 가정의 자녀는 식모나 버스 안내양 또는 배달원으로 가든지 대도시의 공장에 취직하는 것이 다만사였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날 수 있는 세상이었다. 특히, 1960년대는 전국적으로 맞춤복 옷이 유행하던 시기로 옷을 만드는 기술은 평생 '밥'걱정은 하지 않을 자산이었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근간이며 생존 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는 맞춤옷의 전성기로 시골 어디든 양복점이 있었고 1967년 스페인국제 기능 올림픽의 양복 직종에서 금메달을 따, 양복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기업들에서 원단을 대량생산하며 기성복 세계가 도래한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시대적 변화로 자신들의 일터를 잃어버린 소시민들은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야 했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도 직업을 전환해야 할 상태에 처하였다. 여성이며 빈곤과 이혼을 경험하며 자녀를 키우는 사회적인 조건으로는 열악한 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어느 것 하나 삶의 조건이 순탄한 것은 없다. 빈곤을 대물림한 가정의 경우, 더욱더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빈곤에 대하여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는 '빈곤은 삶의 양식을 결정하고 세대로 전승되어지며 빈곤을 자신의 운명처럼 수용 한다'고 한다[16]. 자신의 가난한 신세를 운명적인 어쩔 수 없음으로 받아들여 결국, 경제적·심리적 결핍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며 생존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도박을 하고, 때로는 단 도박하는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정서적 결핍이 어떻게 도박을 하는 기제 또는 단 도박의 기제로 이어지는 지를 볼 것이다. 한 여성 노인의 전 생애를 걸쳐 도박과 단 도박의 메커니즘을 탐색했다는 데에 대해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차별이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기술적(descriptive) 단일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지향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며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전체 맥락 안에서 다양한 양의 정보를 통합하여 독자들에게 의미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의존자의 생존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하다[17]. 특히, 경제적·심리적 결핍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도박을 하면서도 가정을 이끌어온 현상을 살펴 볼 수 있어 본 연구의 부합한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서 제기된 단도박과 도박의 요인기제와 주체적으로 삶을 이끈 역동은 무엇인가? 에 대한 상황이 나 현상을 풀어내고자 했다. 기술적 사례연구는 연구문제에서 제기된 사례, 상황, 사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에

초점을 둔 연구 방법이다[18].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삼각검증이란 한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연구 참여자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고 기록한 후, 그 차이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18].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연구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참여하여 편견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며 다른 동료 연구자들의 비평작업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와 맥락을 이루는 사회구조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과 연구 설계

연구 참여자는 연구목적에 부합한 결정적(critical)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속의 상담전문가에 의한 ‘세평 적 사례선택’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추천을 받았다. 세평 적 사례 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이란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의 소개를 받는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DSM-5(미국정신의학회의 의료 편람)에서 도박장애로 제시한 증상에 따라 돈을 만회하기 위해, 도박을 위해 거짓말, 중요한 관계상실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고 Echebura(2001)의 1년 이내에 2회 이상 도박을 한 경우를 개발로 보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단 도박의 기준 1년을 삼아 선정하였다 [19].

도박으로 인하여 재산을 날리거나 가정파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현재, 단 도박 상태인 사람이다. 연구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면접을 통해 선정되었다. 연구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의 진행 절차

제1단계	연구문제도출
제2단계	사례 선택
제3단계	자료 수집
제4단계	자료 분석
제5단계	기술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대1 심층 면담으로 자료를 2018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

집하였다. 1회의 인터뷰의 시간은 90분-120분으로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 까지라는 포화의 원칙(Saturated)을 염두에 두고 총6회의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심층면담의 장소는 편안하고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와 서명을 얻은 후 실행했다. 자료 분석은 반복하여 녹취자료를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마일즈와 후버만(Miles & Huberman, 1994)이 제시한 매트릭스기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통한 가정과 사회의 관계를 탐색하였다[20]. 분석의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소통하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분석 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역사적 시간 안에서 맥락과 상황 즉, 삶의 변곡점들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려고 했으며 원 자료를 소중히 하며 객관적인 분석이 되도록 연구자 개인적 반성이나 성찰에도 힘썼다.

4. 연구의 윤리성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얻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비밀을 보장할 것과 가명이나 익명, 또는 **으로 사용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렸다. 그리고 연구 도중에 연구의 중단을 요구해고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해 드렸다.

IV. 연구 결과

1. 연대기 순 정리

연구 참여자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 1943년 **도 **리 출생. 4남중 막내
- 1950년(7세)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 한국전쟁발발
- 1956년(13세) 1959년(16세) 서울(가정부 일)감
- 1959년(16세) 1960년(17세)외제 화장품 가게의 점원
- 1960년(17세) 1963년(20세) 명동의 고급양장점 생활
- 1963년(20세) 양장점에서 일하며 야간학교 다님

- 1964년(21세) 양장점에서 일하던 미스터 박과 결혼
- 1969년(26-31세) 첫째, 둘째 아들출산, 셋째 딸 출산
- 1983년(40세) 여관을 매입. 도박 시작
- 1986년(43세) 남편 바람나서 집을 떠남
- 1988년(45세) 큰아들 대학교 1학년
- 1990년(47세) 큰아들 군 입대. 작은아들 대학입학.
- 1993년(50세) 남편 빚을 갚고 생계를 위해 일본도유
- 1998년(55세) 도박친구를 일본서 만나 도박에 몰입
- 2008년(65세) 이혼과 일본인과 결혼하여 비자취득
- 2010년(67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음
- 2014년(70세) 도로에서 쓰러짐. 도박을 끊은 계기
- 2017년(74세) 빚 청산. 단도박상대유지. 미래를 준비

2. 연구 참여자의 생애에 대한 사례 내 분석

다음은 단일사례연구를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상황들을 분석하여 네 개의 사례로 설정 해 보았다. 분석한 결과는 15개의 하위범주와 8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수집한 자료들은 반복하여 읽고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드러난 현상을 포괄하는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상위범주는 하위범주를 묶을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2.1 생애주기별분석 1(0-20세) : 결핍과 자기생존

표 2. 결핍과 각자도생

드러난 현상	하위범주	상위범주
아버지의 부채	가난을 못 벗어남	결핍
끼니 걱정하는 빈농	공부열망	
학교를 못 다님	팔려가는신세	생존경험
식모살이	전전하는생활	
화장품가게 접원		
양장점시다바리		

(1) 결핍

연구 참여자 김필순(가명)은 1943년 **도**리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소문난 도박꾼으로 김필순이 아장아장 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에도 없다. 엄마가 죽도록 일해도 먹는 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학교는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 4달 정도 학교를 다

녔다. 이것이 참여자에게 제도권학교를 다닌 경험의 전부였고 배우지 못함 설움은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 그만큼 가정환경은 절박했으며 결핍의 생활이었다. 먼저, 먹는 것의 결핍. 둘째, 배우지 못함의 결핍. 셋째, 아버지의 부채에 대한 결핍으로 스스로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부양까지도 책임져야 했다. 김필순에게 가족은 짐이었고 자신이 희생하여 살려야하는 무게였으며 무학의 원인을 제공한 가정이었다.

「나는 비밀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 아버지는 두 살 때 죽었지, 아버지가 푼(도박)으로 집도 팔고, 배를 많이 굶았어. 그리고 학교를 참말로 댕기고 싶었는디.」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참여자의 기억에는 별로 없다. 항상 배를 굶았으니 전쟁이건 아니건 마찬가지였다. 필순이 13살 되던 때, 엄마는 입하나 털 요량으로 서울로 식모살이를 보냈다. 애가 애를 보는 형국이었으나 대우가 좋았다. 참여자는 그곳에서 아이를 보살피며 4년을 있게 된다.

「엄마가 나라도 굶지 말라고 서울로 식모살이를 보냈어. 결국은 나에게도 더 잘되었지만. 촌구석은 싫어. 띄약벌에서 농사밖에 더해. 우리는 땅 띄기도 없고, 서울서는 4살 된 애기를 보는 일로 애기가 애기를 본 꼴이여. 한 4년 있었어.」

(2) 생존경험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사람이 제각기 살아갈 길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김필순은 식모살이에서 화장품 가게로 또, 양장점시다바리로 전전(轉傳)했으며 결국은 재봉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조건이 더 나은 곳으로 이직했다. 16살 나이는 어렸지만 상황판단이 빠르고 아기자기. 청소. 판매. 배달 등, 이러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은 비밀 언덕이 없던 자신이었기에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으로 보여 진다. 그녀는 운명에 종속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주체적으로 행동한 여러 정황들이 보인다. 시골집에서 얻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서울에 남는 방법을 선택하는 적응전략을 세운다. 양장점 재봉기술은 살아남는 전략이 된다. 적응(Adaptation)이란 환경조건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대처(Coping)란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린나이에 식모살이를 할 때에도 극진히 주인 딸을 보살피 신뢰를 받는 것으로 적응하며 대처방안을 삼았다. 또한, 손에 기술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서 빈곤의 탈출이며 평생 먹고 살 걱정을 더는 일로 자기 삶을 기획하는 적응 전략의 대처였다. 1959년(16세) '점원 구함'이라는 전단을 보고 외제 화장품가게로 삶의 터전을 옮기나 가게는 망하고 참여자는 그동안 배달을 주로 다녀 친분이 있던 명동의 큰 양장점에 들어가게 된다. 1960년 당시에는 양장점이 호황을 이루던 시대였다. 17살인 참여자는 양장점에서 가장 낮은 시다바리일을 하며 20세 까지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은 바로 돈이며 평생 걱정하지 않을 '밥'이었다.

『식모로 있다가 16살 때, 애기만 보고 늘 푼수가 없어. 그래서 화장품가게로 갔어. 재밌었는데, 망했어. 할 수없이 시내양장점에 가서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실밥도 따고 바짓단도 줄이라고 날 쓴거여. 그 시절은 다 맞춰 입고 사장이 전문가라 기술이 좋아. 재봉은 내 전문이여.』

그러나 못 배운 게 한(恨)이라 야간학교를 보내준다는 양장점으로 이직한다. 자신이 조금만 배웠으면 인생이 이리 꼬이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1960년 '자유당 불법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운동이 4월 19일에 일어났다. 김필순의 나이, 17세 명동에서 시다바리를 할 때로 학생들의 함성소리와 최류탄 냄새가 진동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4.19로 인하여 희생된 희생자는 서울에서만도 130명이 죽었으며 부상자만도 1000명이 넘는 의거였는데도 민초들은 정치나 사회현상에 대하여 주변인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배운 것은 없어도 사장이랑 재봉사 재단사 아저씨 이준마들이 이뻐했어. 한번은 최류탄 냄새가 명동까지 나서 다들 도망가고, 나는 냄새가 진동해도 울면서 바짓단 줄였어. 그때 사장이 봤어. 시다바리가 회사 지킨다고 좋아 헛거여.』

2.2 생애주기별분석2(20-50세): 생산의 시대

표 3. 생산과 격동의 시대

드러난 현상	하위범주	상위범주
눈 맞아 결혼	돈을 벌어들임	생산의 극대화
쏟아지는 일거리		
자녀교육	나의 자존심	격동의 시대
기성복시대 도래	힘든 사회구조	
여관업	꿈에 그리던 일	
남편외도와 도박	나를 위한 유희	

(1) 생산의 극대화

결혼은 김필순에게 인생의 변곡점이다. 이직한 양장점의 재단사가 야간학교 끝나는 시간에 마중을 오고 선물도 사주는 등 극진한 대우에 결혼을 했으나 결혼부터가 자신의 인생이 꼬인 것이라고 했다. 21세에 결혼하고 남편은 재단하고 자신은 재봉하며 불철주야로 옷을 만들어 도매시장에 납품했다. 신용을 지키는 철칙으로 납품 날짜를 꼭 맞추어 주문이 폭주했다.

『부모 복도 남편복도 없고, 징혀. 결혼이랄 거 뭐 있어. 그냥 사진 한방 찍고, 일은 많았어. 유산된 것도 모르고 일만했어. 병신같이. 도매상들이 시간 어기지 않는다고 좋아들 해. 나는 약속 이런 거 잘 지켜. 신용 없는 사람들 보면 속이 터져.』

**동에 땅을 사고 세 들어 사는 양장점도 사고 그 안채까지 사들이는 생산의 시기였다. 26살에 큰아들을 낳고 교육에 가장 신경을 쓴다. 김필순이 생각하는 좋은 교육이란 주위의 말을 듣는 것이었다. **학교가 좋다고 하면 허위로 주소를 이전시키고 불법이라도(당시엔 가능) 서류를 만들어 **학교에 입학시켰다. 다행히 자녀들은 공부를 잘했고 공부 잘하는 지식들은 자신의 자량

1 시다바리(下張): 밑에서 심부름 따위를 하는 사람

이며 자존심이 된다.

『일이 잘되니까 건물도 사고 그랬어. 26살 때, 아들 낳고 그 밑으로 아들 하나 더, 그리고 딸이 막둥이여. 맨날 일만 하고 많이 못 놀아줬지. 밥하고 반찬은 좋은 것만 먹였지. 그때 돈이 있었어. 밤뜰처럼 얼마나 이쁘던지.』

『뭘 알아야 숙제도 봐주지. 근데 용해. 우리 애들은 1등만 해.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했어. 친척아들은 대학도 떨어졌는데, 장학생으로 붙고. **에 땅이 싸도 이사안가고 우리 자식들 명문학교 입학시킬라고. 추천 운도 있었어.』

(2) 격동의 시대

1960년대부터 맞춤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²하여 맞춤형장의 전성기로 호황을 누리던 양복점과 양장점들이 1983년 당시 맞춤형이 사라지고 기성복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양장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여관을 매입하게 된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맞춤형이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 배경의 기저에는 대기업이 기성복제조를 시작하게 되는 데에 있다. 소비자들은 원단의 질이 좋고 값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성복을 선호하게 된다. 대기업 옷들의 기상은 영세한 구멍가게 수준의 맞춤형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았고 전국의 수많은 맞춤형 전문점들이 문을 닫는 계기가 되었다.

『결혼 당시에는 일이 많았는데, 점점 기성복이 판을 치네. 몇 날을 데모를 했어, 텍도 없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기성복이 좋아 싸고. 할 수 없어 여관한 거야.』

맞춤옷이 사향 길로 들게 되자 직업을 바꾸는 적응을 한다. 하루는 앞집의 여관을 하는 안주인이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대형여관을 매입했

다. 여관은 도박에 눈을 뜨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 방을 빌려 도박을 하는 꼴들로 인해 도박의 접근성이 커졌고, 남편의 외도가 정서적인 허전함으로 작용하여 도박의존으로 빠지게 된다. 어렵사리 매입한 여관은 결국 도박으로 날린다. 다시 수선 일을 하면서도 도박은 그칠 줄을 몰랐고 더욱 빠져 들어갔다. 늦게 배운 도박을 참여자는 아버지 탓과 남편의 탓으로 돌린다. 아버지의 관속에다 화투를 집어 넣어주면 자손중의 하나가 노름꾼이 나온다는 말을 연구 참여자는 철석같이 믿었다. 이재춘(2018)은 의존을 자신이 처한 어떤 문제로부터 회피하려는 마음이나 복잡한 삶의 문제가 만들어낸 결과⁹라고 보고하는데, 연구 참여자의 도박의존은 경제적 결핍과 남편의 부재에 의한 심리적·정서적 결핍으로 보여 진다.

『징허구면. 일을 많이 했어. 남편은 재단하고 난 미성 돌리고. 그런데 앞집 여관 하는 여자는 잠만 자는데, 돈은 딱박 딱박 받는다 말이지. 예잇! 나도 여관을 해야겠다고 하고 여관을 샀지.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도 생기고 좋아. 그런데, 못된 것을 배웠어. 노름꾼들이 방을 빌려 매일 도박하는데, 내가 배웠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좋더구면.』

연구 참여자의 인생의 전환점은 41세에 여관을 매입한 것이다. 여관이라는 물건은 자신의 꿈의 실현이었다. 몸에 짚은 빈곤은 늘 밤과 배움의 결핍이었고 돈이 없었기에 전전(輾轉)하며 기술을 익히는 수밖에 없다는 결심한다. 그 기술로 인하여 '딱박 딱박' 앉아서 부를 얻는 1차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여관은 연구 참여자의 타고난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편하고 쉬운 '일'이었다. 여관업은 안전의 세계이며 아무것도 없는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여관이라는 경로를 통해 도박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다. 도박은 김필순에게 있어 일상의 삶에 대한 탈출구였던 것이다. 또한, 도박은 남편의 외도로 인한 공허한 빈 가슴을 달래주는 도구였으며 일생 고생만 한 자신에의 보상이 되었다. 남편이 빚만 남기고 떠날림을 차려 나가버리고 자식 셋과 여관의 은행 빚, 남편의 사업 빚을 떠맡고 생활전체

2 1960년대 대도시와 작은 마을에도 양복점이 있었다. 1967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양복 직종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12연패를 차지, 국제적으로 기술을 인정받았다 (2016.7, 한국무역협회, 수출상품시장 변화추이)[21].

를 여성의 혼자 힘으로 떠안게 된다.

조희선. 전보영(2013)이 여성 가정들은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삶이 녹녹하지 않고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22]고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여성가장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빈곤'과 배우자의 부재로 정서적인 문제가 대두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절망감, 부담감,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며 우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남편이 도박판에 있던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 나갔어. 빚만 지고 처자식 팽개치고, 절대로 이혼 안 해주었지. 그런데 나가 쾀이 된 거여.」

남편의 가출로 도박을 접하게 된다. 도박은 평생 일만하고 남의 눈치만 보던 생활과는 상이했다. 도박은 일상의 보상을 받는 충족이었고 즐거움으로 작용되었다.

2.3 생애주기별분석3(50-67세):재기의 삶과 재 도박

표 4. 재기의 삶과 부초

드러난 현상	하위범주	상위범주
도유를 결심	단도박과 생활비 마련	재기의 삶을 기획
일본에서의 노동		
놀이친구 재회	운명의 장난	재 도박
이혼과 재혼		
세례	심리적 위안	

(1) 재기의 삶을 기획

1993년 김필순 50세에 또 다른 전환을 위해 일본으로 도유를 결심한다. 큰아들은 군대, 작은 아들은 대학 1학년, 딸은 고3 때로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으며 빚 독촉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무작정 일본으로 간다. 돈을 벌고 도박을 끊기 위한 탈출을 기획한다. 보름 관광비자로 일본으로 건너온 참여자는 며칠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하고 비자 만기일이 넘고 무비자상태로 일본에 살게 된다. 다행히 낮에는 설거지, 밤에는 클럽(술집)의 주방보조일이 구해져 일하며 비정

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으로 돈을 보낸다.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자로 입국관리 직원에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간다. 그러한 중에 술집에서 일하는 한국 아가씨들의 옷 수선을 해주다 그 일이 크게 되었다. 숙식이 제공되었기에 버는 돈은 모두 한국의 도박 빚을 갚고 자녀들의 학비로 충당했다. 술집근처의 양품점에서 옷 수선 해 달라는 주문이 쏟아져 오고 빚을 모두 갚았다.

'90년 이전의 일본의 경기는 최고조였다. 전 세계 대기업 10위안에 10곳이 모두 일본의 기업들이었고, 동경 23구(區)의 땅값으로 미국전체를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다. 이러한 경기덕분으로 일손이 없어서 기업도산. 일본 구인난에 허덕이다(1989. 9. 30 경향신문)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23]. 그러나 버블이 깨지고 일본경제는 침체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모르고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제3의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한다. 돈을 벌려면 무엇보다도 도박을 끊어야 했기에 일본은 단 도박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좌절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탈출구로서 꿈과 빈곤의 탈주의 공간이기도 했을 것이다.

「친척한테 일본 좀 가게 해 달라고 했구면, 친척이 여권 만들어 주고, 다 정리하고 일본 갔지. 그때는 일본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이 많이들 걸렸어 아이고 지금도 덜덜 떨려」

「가자마자 오사카(大阪)에 주방장 집으로 갔는데, 며칠 지나도 일이 없어. 아! 그런데 일본에서 13일째에 점심 설거지일이 생겼어, 인제 됐다 싶더라고.」

일본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식모살이, 심부름꾼, 양장점 시다바리 등 남의 집을 전전했던 떠돌이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늘 떠돌아다니지만 주체적으로 삶을 주도해 나간다. 나그네이며 이방인이라는 지위는 늘 불안정하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동화되지 못한 채 경계인으로 머물게

되며 그 존재 자체에 있어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24]이지만, 김필순은 손에 익힌 기술과 위기 때마다 체화된 생존전략인 '적응'을 통하여 비자 없음의 불안한 삶을 이겨나간다. 비자가 없다는 말은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신분'인 불법자로서 남의 눈을 피해서 살아간다는 말이다. 나그네, 이방인, 불법 자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다. 범치 국가 내에서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일종의 '벌거벗은 생', 여기서 벌거벗음의 의미는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자를 뜻한다는 점에서 현대 범치주의 국가의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된 이방인들은 '법의 외부'에 있는 자들[25]이며 보호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언제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신세로 전락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삶의 전략은 버는 돈은 곧바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일본에는 한국인의 공동체가 형성,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먹이 사슬의 구조라고도 말 할 수 있다. 클럽의 주인과 접대부 여성, 그 여성들의 말이 되어주는 불법 자동차영업, 불법송금, 한국인들에게 보증금과 사례금(시지킹, 레이킹)없이 방을 빌려주는 곳 등은 서로가 서로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포식자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낮엔 식당설거지, 밤에는 클럽의 주방일하고, 술집 아가씨들의 옷을 고쳐주었지.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고 아이들 학비며 결혼 자금까지 다 대주었어.」

김필순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일본이었지만 적응과 대처해 갔다. 그곳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었으며 한인공동체가 있었다. 뉴커머(New-Commer)³라고 불리는 공동체는 우리나라의 IMF경제위기 때에 파산을 하거나 실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그 수가 증가하였다. 2011년 일본 법무성입국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2만 명, 19만 명을 초과한 수가 한국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들은 타문화와 자문화의 이중가치 규범 사이에서 다양한 문화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김필순은 일본문화를 배제한 우리문화만을 고집하며 유

지했다[26]. 일본의 말이나 문화를 수용하지 않아도 불편할 게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적자생존과 먹이 사슬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는 오히려 더 적응을 쉽게 하였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옷을 수선하는 일에 눈을 돌렸으며, 이는 가장 큰 수입원으로 빚을 청산하고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교육을 마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버는 거 다 송금했어. 뉴칸(입국관리소)에서 쳐들어오면 돈을 뺏기고 감옥에 있다가 송환되니까, 불법은행을 이용했고출·퇴근도 나라시((위법택시)를 이용했어. 한 달에 10만원주고, 한 차에 6-7명 타. 차주인도 밥벌이가 되는 기여. 다 그러고 살아. 방도 한 국인한테 빌려. 일본말 하나도 못해도 잘만 살았지. 돈은 많이 벌었고. 식모하던 년이 서울로 그것도 명동에서 버티고, 큰 여관도 해보고 일본까지... 나도 대단해.」

(2) 재 도박

그런데 1998년 55세에 인생의 전환을 맞는다. **사거리에서 도박친구를 만난다. 우리나라 IMF금융위기에 파산해서 일본으로 왔다고 했다. 한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1997년 이후, 파산을 하거나 실업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일본으로 입국하던 그런 시기였다. 그 날로 다시 도박으로 빠져 빛까지 지게 된다. 본전을 찾으려고 도박을 하나 빛만 계속 늘어 날 뿐이고 일본의 빠쟁고까지 하게 된다. 도박을 끊고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 일본 도유는 한동안 도박을 끊는 계기가 되었으나 도박친구를 만남으로써 또다시 도박의 길로 접어들었다. 도박에 집중하면서도 술집의 주방일과 옷 수선의 일은 그만 두지 않았으나 도박에 집중하면 할수록 수선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방도 지각을 반복하게 되었다.

「**사거리에서 서울서 화투멤버인 **를 만나 화

3 1980년대 이후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일컫는 말. 돈벌이목적으로 일본에 사는 사람들. 오울드 커머(Oldcomer) 즉, 전전(戰前)의 식민지와 관련하여 존재했던 사람들과 비교하여 뉴커머로 불림[26].

4 고지마마사루(小島勝,1900)는 타문화와 자문화의 이중 가치 규범 사이에서 '선택과 배제'의 작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변화의 형태를 보인다. 자 문화를 포기하거나 현지 문화에 동화 또는 분리하는 관점으로 문화가 있다[26].

투를 다시 치고, 돈 떨어지면 아들한테 또 돈 보내라고 하고, 나 인생에 켈 후회가 바람둥이 남편하고 결혼 한거하고, 도박한 거여.」

비자 없는 삶⁵은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거리에서 심문을 당해 송환조치 된다. 일본의 불경기로 단속은 더욱 심해지고 불안에 떨다 결국, 위장결혼을 선택한다. 마음에 들지 않은 남편이라도 서류는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22년을 버티어 왔지만 결국, 65세에 위장결혼전문브로커를 통해 위장결혼을 했다. 이일로 비자문제가 해결되었으나 동거가 되어 버렸고 자녀들은 그동안 혼자 사는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일본인과 산다고 하니 눈치가 달라졌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했다.

「버티다 못해 위장결혼을 1000만원 들여서 한 거여. 브로커 500, 지금 영감 500만원주고 매달 준다는 것은 안줬어.」

「남편과는 안 살아도 이혼만은 안 할라고 했ندی, 단속이 심해 어쩔 수가 없었어. 아! 그랬더니 자식들 눈치가 달라.」

위장결혼 후,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하느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말에 눈물을 확 쏟아내며 영영 울었다고 한다. 두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슴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늘 자리하고 있었고 모든 고생은 '아버지 없음'으로 인한 것 이었으며 아버지의 부재는 참여자에게 그리움과 공허였다. 아버지 없음으로 어린 나이에 식모로 집을 떠나야 했고 갖은 고생을 했기에 "하느님, 아버지" 그 아버지란 단어 한마디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만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따뜻함과 보호로서의 울타리를 경험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부재는 가난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결핍과 심리적인 위축을 겪었을 것이다.

「화투 끝인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조졌써. 어릴 때 친구하고 싸웠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겨여"하느디 서럽더라고. 엄마는 농사짓고 베짜고 옷도 만들어 시장에 팔아도 제대로 된 '밥'을 댁기가 어려웠당께. 오죽하면 날 식모로 보냈겠써. 학교도 못갔고, 못 배우니까 회사도 못갔고 결혼도 그러고.」

참여자는 40세에 도박에 입문해 아버지의 부재와 남편의 빈자리인 '결핍'을 도박으로 채운다. 도박은 새로운 정신세계였으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유일한 유희이자 취미였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는 도박이었다. 그러나 도박의 재진입은 녀을 놓고 살아가게 된다. 자기를 놓아버린 것이다. 빚을 청산하고 작은 여관이라도 사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옷 수선하는 일도 주방일도 예전 같지 않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55세, 재 도박 이후 삶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노력하고 실현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삶을 바라보았던 이전의 삶과는 180도로 바뀌게 된다. '녀을 놓고 사는 삶'으로 자기를 놓아버린 무의미한 삶에 빠져있는 상태가 된다. 인생의 적응 과정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2.4 생애주기별분석(67-현재): 반복의 여정과 자각 그리고 각성

표 5. 반복의 여정과 자각 그리고 각성

드러난 현상	하위범주	상위범주
세례후 단 도박	이성과 욕망사이	반복의 여정
도박에 재 의존		
쓰러짐	바닥경험	자각과 각성
선종의 결심	깨달음과 희망	
미래를 희망		

(1) 반복의 여정

세례 후, 한동안 도박을 하지 않고 성당생활에 충실하려고 다짐했지만 수선 집 근처에 빠쩡고 장이 있고 도박꾼들이 불러내는 바람에 다시 도박을 가까이 한다.

⁵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언제든 입국관리소나 경찰의 심문이나 탐색에 발각되면 강제 송환된다.

『세례를 받고 도박을 안했지. 잘살아 보려고 반지하주차장을 개조해서 수선 집을 차리고, 기를 쓰는데도 안 돼. 저녁에 자면 빠징코 다마(구슬)소리가 들리고 또, 낚들이 날 부르러 와. 한판하자고.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

(2) 자각과 각성

생애사적 인식의 전환의 계기는 70세에 길에서 쓰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찾아온다. 사고는 삶의 변화를 야기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렇다 죽으면 빛도 못 갖고 도박에 눈이 멀어 죽었다고 ‘욕’을 먹을 것 같아 정신을 차렸다고 했다. 이렇게 사고는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하고 도박을 멀리 하는 계기가 된다. “이제는 수선 일 해서 손자들 용돈도 쥐야겠다.”라고 한다. 참여자의 바람은 한국으로 귀환하는 일이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살고 싶다고 했다. 사고는 도박에 빠져 있던 자신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삶으로 탈출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된 것이며 인생을 재기획하는 계기가 된다.

『길거리에서 푹 쓰러지더라, 기억에 한개도 없어. 깨어보니 병원이야. 아차 싶었지. 길거리에서 죽었다면 남들이 뭐라 그러졌어. 도박에 미쳐서 죽었다고 손가락질 안 허졌어?』

V. 논의 및 제언

이상으로 사례를 통하여 도박과 단도박의 과정을 살펴 보았다.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15개의 하위범주와 8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는 ‘빈곤과 결핍의 삶 안에서 적응과 대처를 반복하며 생존을 살아냄’이었다. 참여자의 도박에 대한 의준은 이제춘(2018)[9]이 제시한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박의존은 자신이 처한 어떤 문제로부터 회피하려는 마음, 혹은 가치관의 혼란, 잘못된 신념이나 판단 등 복잡한 삶의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경제적, 심리적 결핍을 회피하려는 마음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에게 도박은 어떤 면에서는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울러 자녀의 성공은 자신이 배우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리만족의 기제로 작용했고 마음의 근저에는 든든함으로 작용하였다. 도박을 습관적으로 했지만 자녀교육에 쏟은 희생과 헌신의 덕분에 자녀들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가난과 한 부모 여성 가장이면서 도박의존자라는 삼중의 고통의 굴레와 구조를 끊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가 지닌 함의이며 의미이다.

도박을 한 정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접근성이었다. 둘째는 기성복 시대가 도래 하면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는 남편의 부재로 인한 심리 정서적인 공허감이 도박의존을 하게 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박은 접근성과 우연한 기회(사고)로 촉발되었다. 정작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간과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박의존과 단도박의 일련의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자신의 문제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일수록 아웃리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간의 고통의 근원,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중독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 콘텐츠, 심리적 스트레스와 결핍을 해소하는 상담프로그램 콘텐츠, 사회구조적인 변화(맞춤옷사향, IMF)에 피해를 입는 소시민들을 위한 기술훈련의 역량강화 콘텐츠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도박의 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갑숙, 임왕규(2012)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은 심리적 복지 감의 긍정적 차원인 생활만족도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27]라고 보고하고 있듯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의 콘텐츠 역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단

일사례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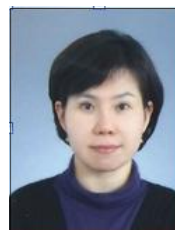
[1] 김진혁, “도박의 현실적 통제 방안,” 한국공안 행정학보, Vol.22, No.3, pp.12-36, 2013.
 [2] 한국 도박중독포럼, 2013.
 [3]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백서* 2016.
 [4] 차진경, 오희, 강현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의 스트레스반응, 스트레스 대처양식, 알코올 및 도박문제,” 한국중독범죄학보, Vol.7, No.3, pp.89-116, 2017.
 [5] 세계보건기구 WHO, <http://www.who.int>
 [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APA통계 2016. 2017.
 [7] 조근호 외 19인, *중독재활* 총론, 학지사, 2011.
 [8] 홍혜미, 김용근, “여성노인도박자 생애사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2, No.2, pp.63-90, 2014.
 [9] 이계춘, “중독에 대한 철학적 고찰,” 생명문화 연구와 기독교 철학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pp.33-46, 2018.
 [10] S. Robbins, Pranab Chatterjee, Edward R. Canda, *Contemporary Human Behavior Theory*, Pearson Education, 2012.
 [11] 이정임, 권정혜, “마음챙김 기반인지행동치료가 도박중독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Vol.15, No.1, pp.1-28, 2015.
 [12] KBS, “불법도박 사이트 적발,” 2017. 8. 8.
 [13] YTN, “860억 도박 사이트 운영,” 2017. 12. 3.
 [14] 신영철, 최삼욱,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병적 도박,” 대한불안장애학회지, Vol.2, No.2, pp.86-93, 2006.
 [15] 김충렬, “도박중독의 원인에서 의지적 요인의 연구,” 신학과 실천, 제22호, pp.209-253, 2010.
 [16] 탁장한, 박정민, “컴퓨터 노숙인 빈곤대처방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Vol.45, No.4, pp.357-380, 2014.

[17] E. Guba and Y. S. Lincol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Thousand Oaks, CA: Sage, 2005.
 [18] 박휴용, *질적 연구 방법론*,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19] 이근무, 강선경, 탁평곤, “단도박자들의 도박 중독행위 재발경험에 대한 질적내용분석 연구,” 정신과 보건사회사업, Vol.43, No.2, pp.5-31, 2015.
 [20] M. B. Miles and A. M. Huberman,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1994.
 [21] 한국무역협회, 수출상품시장 변화추이, 2016.
 [22] 조희선, 전보영, “생애사를 통해 본 이혼 한부모 여성 가장의 삶과 대처양식,”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pp.349-370, 2013(5).
 [23] 경향신문, “일본 기업 도산,” 1989. 9. 30.
 [24] 손영창,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와 타자성”, 프랑스문화연구, 제24집, pp.97-127, 2012.
 [25] 조주현, “생명정치, 별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윤리,” 한국여성학, Vol.24, No.4, pp.35-64, 2008.
 [26] 김선미, “국제이주여성의 이중가치규범의 양상,” 국제이해 교육 연구, Vol.6, No.2, pp.101-128, 2011.
 [27] 이갑숙, 임왕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91-306, 2012.

저 자 소 개

김진숙(Jin-Sook Kim)

정희원



- 2007년 2월 : 성균관 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아동 및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중독

차 명 희(Myuong-Hee Cha)

정회원



- 2017년 ~ 현재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2018년 ~ 현재 : 서강대학교 생명 문화 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교정 복지, 중독, 여성복지